

원가절감의 장애물



신 정 일

(본지 편집위원·유일농원 영업부장)

『Open Mind』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숨기거나 눈치보는 일 없이, 체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남이나 나의 약점을 의식치 아니하며, 비록 유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존재할 때, 구태여 그 동기를 악의적으로 따지지 아니하며, 서로 마음을 폭놓고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바로『Open Mind』의 뜻이라고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이웃의 어느 국가를 예로서 비교할 때, 그들의 100명중 100명이 모두일을 하고 우리의 100명중 50명만이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절반밖에 미치지 아니하며, 우리와 그들의 100명이 모두 각각 일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100명은 하루 10시간 일을 하고 우리의 100명은 하루 5시간만 일을 한다면 역시 우리는 그들의 절반밖에 미치지 아니하며 우리와 그들의 100명이 모두 하루 10시간씩일을한다고 해도 그들의 100명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의 100명은 게으르게 일을 한다면 역시 우리는 그들에게 뒤처지게 되고, 우리와 그들의 100명이 하루 10시간씩 모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100명은 진실로 마음을 합하여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고 우리의 100명은 폐쇄된 마음으로 서로 흩어져서 일을 한다면 역시 우리는 그들에게 뒤떨어지게 된다.

필자가 다음의 글을 쓰는 뜻은 이상과 같은『Open Mind』의 발로이며,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순수한 입장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고 서로 의논하여 발전적인 길을 강구해 보자는 의도일 따름이다.

● 생산자

시기와 방법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사료회사가 8 월부터 사료가격을 올렸다. 지구의 이상기후 때문에 옥수수과 대두박값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여타 단미사료가격의 오름과 환율의 계속적인 상승요인등으로 해서 81년도 상반기까지 사료가격의 추가인상폭이 약 30%정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생산원가의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누차 강조되어 왔지만 사실상 이제는 생산자의 입장이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효율을 높이지 아니하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려졌다. 국민들에게 훌륭한 단백식품을 싼 값에 공급해야 할 사회적인 의무를 생각하기 전에 앞으로 또 30%이상 사료가격이 오른다면 도대체 계란을 얼마에 팔아야 하고 육계 한마리를 얼마에 팔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비싼 양계산물을 국민들이 먹어줄 것인가? -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양계업계 생산원가의 실패는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어져 있다. 8 월의 사료가격인상 이전 즉 7 월까지의 사료가격을 기준으로 육용계의 생산원가를 예로 들면, 대한양계협회나 월간잡지사의 경우는 kg 당 750 원, 당국의 계산으로는 kg 당 700 원선, 그리고 일반농가에서는 kg 당 650 원으로 나타내고 있다. 당국이나 단체에서는 직접비용외에 수리수선비, 기구상각비등의 간접비용등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원가계산을 하지만 일반농가의 생산자들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렵고 골치 아픈 항목들은 아예 계산밖에 접어두고 직접 목돈으로 지출되는 초생추대, 사료대, 약품비, 연료비 그리고 인건비등으로서만 그 생산원가를 산출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상의 직접비용외에 유지비, 소모품비, 상각비, 자본 및 고정 자산이자, 위험부담율(질병, 각종 환경변동에 의한 예기치 아니한 생산성 하락등), 계속사업에서 오는 생산효율의 하락, 양계산물의 판매를 위한 상인들과의 접촉비용, 판매후의 수금비용과 수금을 위한 시간 손실에 따른 인건비상승요인등의 각종 부담율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판매에 쓰이는 비용은 생산원가외에 따로 추가하여 판매원가로 잡아야 할 것이지만 양계산물만큼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생산 원가와 판매 원가가 구분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육계산물의 생산원가는 7 월까지의 사료가격 기준으로 최소kg 당 750 원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오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다.

일반농가의 생산자가 말하는 직접비용만의 생산원가도 우리나라 평균으로 kg 당 650원을 기준으로 최우수 생산자그룹 kg 당 570~580원, 우수그룹 600~620원 평균그룹 650원, 하위그룹 kg 당 700원등으로 무려 4개등급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의 원인은 순전히 생산효율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직접비용만의 생산원가에서 가장 우수그룹 생산자가 평균보다 70~80원을, 최하위의 생산자보다 무려 kg 당 120~130원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로 놀라운 사실인 것이다. 필자는 직접 비용 생산원가(이하 야외식 생산원가라 칭함)로서 kg 당 570~580원으로 년중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를 종종 만나고 있는데, 이들은 53일~56일령에서 평균 출하체중 2kg, 사료효율 2.5내외, 출하율 덤 제외한 100% 출하등의 놀라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사항은 경영주가 직접 사양관리에 반드시 참여하고 경영자세가 성실하며, 양계장 환경이 매우 깨끗하고 질병예방목적외의 약품을 남용치 아니한다는 사항등이 있고 이외에 사양밀도를 넓게한다든가 사내의 환기가 매우 좋다는 등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리기법을 계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8월의 사료가격 인상에서 육계사료인상폭이 10%라고 한다면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사료의 비중이 60%일때는 6%, 65%일때 6.5%, 70%일때는 7%씩의 육계 생산원가가 상승되었고 따라서 kg 당 약 50원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산원가는 750원에서 800원으로, 야외식 생산원가는 650원에서 700원으로 뛰어 올랐다. 앞으로 또 다시 30% 정도의 사료가격이 오른다면 육계생산원가는 20% 정도의 인상요인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kg 당 약 150원씩의 원가 상승을 나타내어 일반적인 육계생산원가는 800원에서 무려 kg 당 950원으로, 직접비용만 계산하는 야외식 생산원가만 하더라도 kg 당 700원에서 850원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닭고기를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하며 그렇게 비싼 닭고기가 잘 팔려 줄 것인가?

결론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앞에서 열거한 최우수 생산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우수 생산자는 거뜰히 역경을 디디고 이겨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우수 생산자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장애물이 현재 우리나라 양계업계에 도사리고 있다. 바로 돌연변이식 사료품질과

질병 (IB, IBD, EDS) 문제인 것이다.

● 돌연변이식 사료품질

양계산업에 생산효율을 좌우하는 3 대요소는 병아리와 사료와 사양관리이다. 오랜 경험을 가진 양제인은 자기가 사양하고 있는 계군에 이상이 생겼을 때 대체적으로 그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좋은 병아리에, 좋은 사료로 좋은 사양관리를 하면 그 계군은 반드시 좋은 생산효율의 결과를 내어 준다. 최우수 생산자들은 사양관리에 베테랑들이고 성실히 경영하며, 병아리의 취사선택에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진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료의 품질에 대해서만은 속수무책이다.

양계산업에서 차지하는 사료의 비중은 가장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그 원료구입에서부터 시작하여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정책에까지 모두가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최근 몇년동안 항상 사료가격과 사료의 품질문제등은 양계산업의 최대관심사로 논의되었으며, 사료의 품질 때문에 일어난 현장의 부작용은 비밀비재하게 많다.

수시로 일어나는 각종 단미사료의 부족상태, 출혈경쟁으로 나타나는 사료회사의 경영부실상태, 항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과 대두의 가격문제와 수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들- 이러한 각종 문제의 결과는 모두 생산되는 배합사료의 품질문제로 귀결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영향과 책임은 생산자에게로 돌아간다. 곰팡이의 독소피해, 갑작스런 설사, 이유없이 나타나는 산란저하, 영양결핍에 인한 무더기 폐사, 형편없는 육용계의 성장지연등 이러한 모든 결과적인 책임을 생산자들은 무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돌연변이식 사료품질저하 문제는 관계된 사료회사들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결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설동의 제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료회사에서 생산된 사료의 품질을 본인들이 모른다는 것은 양제인의 입장에서 볼때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다.

가장 악성적인 하나의 가정으로서, 만약 어떤 사료업자가 자금난과 원료의 단가를 의식한 나머지 산란계 사료에 일주일 간격으로 어분을 첨가했다가 하지 않는 배합을 반복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생산효율저하는 아무리 우수한 생산자라 할지라도 생산원가 절감이란 하나

의 공념불에 그치는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배합사료 품질 저하의 원인중의 하나는 수입 옥수수의 품질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년간에 걸쳐서 자주 양계인들을 골탕 먹였지만, 최근 몇개월전에 부산으로 들어온 옥수수의 많은 양이 변질했다든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천으로 들어온 10여만톤의 옥수수가 상당량 변질하여 각 사료 공장의 구매담당자들이 인천으로 몰렸다든가, 이번 인천으로 들어온 옥수수의 변질은 그 건조상태로 보아서 미국의 현지 선적 당시부터 불량품이었다는 등의 정확한 사실여부, 혹은 3 개등급으로 되어 있는 옥수수를 구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여 약 10% 정도 비싼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등의 그 내용과 원인과 복잡한 과정등을 우리들 생산자들은 잘 모른다. 그러나 옥수수를 비싸게 구매하고 있든, 아니면 그리고 옥수수가 썩은 것이든 안 썩은 것이든간에 우리나라에 도착된 사료원료용 옥수수는 각 사료회사에 분배되고 사료회사는 그것을 분쇄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그러한 배합사료를 사용해서 생산자는 원가절감의 반대상황에서 비싼 양계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과정의 결과는 생산자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가장 최우수 생산자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원가절감의 원천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질병-IB, IBD, EDS

최우수 생산자가 그들의 양계산물에 대한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할 때 또하나 부딪치는 불가능의 장애물은 질병-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질병들, 즉 발생보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염성 기관지염(IB)과 감보로병(IBD)과 산란저하증후군(EDS)의 세가지 질병이다.

작년(79년도)까지 양계업계의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질병이었다. 뉴깃슬, 호흡기등을 위시한 각종 질병이 그야말로 창궐하였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올해부터는 질병의 강도가 매우 낮아져 생산자들이 벌써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이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올해부터 질병발생이 눈에 띄게 적어진 그 원인을 누구도 모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의 네가지 사항으로 압축시키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양계장이 79년도 겨울을 기점으로 올인, 올라옴의 과정을 우연하게 겪었다는 것, 즉 육계와 산란계 공히 지난 겨울철을 기점으로 매우 그 수수가 감소되었다는 것

이다. 다음 둘째는 지난 겨울의 추위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추위에 의한 살균작용결과라는 사항이다. 셋째는 79년도까지 계속된 너무 많은 질병을 치른결과 잔존 계군의 항병력이 높아졌다는 사항이고, 넷째는 사료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사항이다. 질병이 만연하든 만연하지 않든간에 최우수 생산자들은 그들의 양계장에 대한 질병콘트롤에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대책이 있다. 가장 무섭다는 뉴켓슬과 호흡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며, 폭시독, 빠다리병, 대장균등에 대한 예방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발생보고되지 아니한 위의 세가지 질병에만은 그 어떤 대책도 자신도 없다.

필자도 역시 생산자인 하나의 농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점잖은 학계와 관계의 어떠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그 질병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고, 또 그 뒤에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비로소 그 질병에 대한 대책인 백신이 수입이나 생산되게 되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나 현실의 야외에서는 그로인한 피해가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고, (물론 이것은 발생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불성설이지만), 최우수 생산자들도 이에 대한 만큼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IB에 의한 산란저하, IBD에 의한 모든 예방백신의 역가상실, EDS의 피해, 왜 이러한 문제가 어떤 체면이나 어떤 절차 때문에 무방비의 대책으로 방관되어지고 있는가?

● 사족(蛇足)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대로 배합 사료가격이 인상된다면 육용계 생산원가는 kg當 750원에서 950원으로, 계란원가는 대란기준 개당 38원에서 48원으로 상승된다. 양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팔고, 경영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천직인 양계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생산자가 할 수 있는 생존의 길은 원가절감 방법외에는 없다. 양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원가절감대책외의 원천적인 장애물들은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관들에 의해 제거되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생산자들은 오로지 성실히 경영할 따름이다.

“내가 오늘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계사관리를 아내에게 맡기고 읍내에 나와 손금타령이나 다방 레지의 엉덩이치기를 하고 있다면 이는 나 자신의 퇴보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적인 다른 국가에 뒤떨어지는 복합요소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행수필 국제바가지(下)는 다음달로 미룹니다